

은행권, 종합 모바일 플랫폼 경쟁

우리는 '위비' · 신한은 '써니' · NH농협 '올원' · KB국민은 'Liv' · KEB하나 '1Q' 등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시대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전분기 대비 2.3% 늘어난 7361만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5284만건, 이용금액은 3조786억원에 달한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빠르게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단순히 모바일 뱅킹을 넘어 금융 상품은 물론, 생활품을 사고파는 오픈마켓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모바일 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은 이체나 환전 등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게임, 메신저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더하고, 특히 해당 은행과 거래 관계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모바일 뱅킹과는 다르다.

예컨대 '카카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안에서도 결제, 게임, 쇼핑,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도 유인하는 효과가 높다.

먼저 우리은행은 위비뱅크를 시작으로 위비톡, 위비멤버스, 위비마켓으로 이어지는 종합 금융 플랫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는 간편 송금, 환전, 보험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게임, 음악, 위비캐릭터, 모바일메신저 위비톡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생활과 금융을 아우르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은 '평메시



북적이는 인천공항 입국장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났던 여행객들과 귀경객들이 입국하며 북적이고 있다.

지(일정 시간 지난 후 메시지 삭제)', '캡슐메시지', '긱속말', '메시지회수' 등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했다. 위비마켓은 오픈형 몰로 타사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환전과 자동차 대출 서비스에 특화된 '써니(Sunny)뱅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써니 스피드업 누구나환전' 서비스는 비대면을 통해 누구나 주요 통화에 대해 90%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최적의 환전 시기를 위해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나 최저 환율 도달 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환율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써니 마이카대출은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실행까지 은행 영업점 방문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NH농협금융은 지문이나 핀번호로 로그인하고 모바일뱅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은행서비스를 직접 꾸미고 설계하는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를 운영 중이다.

올원뱅크의 강점은 오픈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이다. 올원뱅크에 로그인하면 은행상품은 물론 NH농협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NH농협캐피탈과 NH저축은행의 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등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여행패키지, 오토론 패키지, 더치페이·그룹송금·경조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했다.

KB국민은행도 생활 속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Liv(리브)'를 앞세우고 있다.

리브는 '리브모임', '리브경조사', '리브더치페이' 등을 통해 스마트한 자금관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N뱅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1Q뱅크'와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로 경쟁에 뛰어 들었다.

1Q뱅크는 지문을 등록하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서 로그인도 하고 송금도 할 수 있다.

하나멤버스는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정착시키는데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은퇴 후 생활비 190만원... 288만원 희망

은퇴자 10명 중 6명 "재취업 또는 일자리 원해"

은퇴 후 희망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차이가 100만원에 달했다.

때문에 10명 중 6명은 은퇴를 하고도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고령자들의 고용률도 증가 추세다.

15일 국민연금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등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34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았으며, 평균 생활비로 19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평균 33만8000원을 받았다.

반면 연구소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을 보면 50대 은퇴가구의 생활비가 월 2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79만원, 70대는 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은 190만원 수준이다.

비은퇴자들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로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월 288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실제와 98만원 차이다.

은퇴 가구 중 20%가 평균 6500만원 수준의 부채도 갖고 있다.

은퇴가구의 67%가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57%의 은퇴자가 재취업과 일자리를 희망했다.

55세부터 65세 미만의 고령자들의 고용률은 2012년 63%에서 올해 67%까지 4%p 증가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준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은퇴를 대비해 정기 저축 비율은 49%, 가구당 저축액도 월 평균 53만원에 그쳤다. 비은퇴 가구의 12%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예외 가입되지 않았다. /뉴시스

상반기 소멸된 카드포인트 681억원

금융포털 '파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 확인 가능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이'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카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가지 중 여덟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자가 가장 내 활용하지 않아 사라진 카드 포인트 액수는 올 상반기 681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일을 지키지 않으면 높은 연체이자와 신용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할부 이용기간 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는 구간별로 동일한 카드가 적용된다.

A카드사의 기간별 할부 수수료를 보면,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개월(18.0%) 등이다.

'세이프 포인트'로 불리는 '선지급 포인트'를 활용할 때도 본인의 카드 이용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 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며, 연체될 경우 최고 27.9%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뉴시스

ISA 출시 6개월, 240만 계좌에 2.8조 모여

금융위, 성과·계획 공개... 10만원 이하 79% · 57% '1만원 이하'

ISA 출시 6개월만에 240만 계좌가 개설됐다. 여기에 2조8000억원이 모였다.

10만원 이하의 투자자는 전체의 79%에 달했고, 은행 ISA 고객 10명 중 6명은 '1만원 이하' 계좌를 개설했다.

10만원 넘는 현금을 ISA에 맡긴 금융소비자는 전체의 21% 수준에 불과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민재난생리 ISA 출시 6개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3월14일 출시된 ISA계좌가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14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ISA 가입계좌는 217만3000개며 잔고는 2조988억원에 달했다. 계좌는 전체의 90.4%, 잔고는 73.8%에

이른다.

증권사 19곳에서도 ISA를 판매했다. 가입 계좌수는 22만8000개(9.5%), 잔고는 7410억원(26.1%)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78.8%)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 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 계좌는 모두 135만8000계좌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57.1% 수준이다.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51만6000계좌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1만원 이하'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9.4%에 달했다.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현금이 투자된 계좌는 41만3000개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1000만원 넘게 투자한 ISA 계좌수는 9만1000개로 전체의 3.8%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익률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뉴시스

갤럭시노트7 신제품 오늘부터 교환... 이통사 대리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이 이통통신3사를 통해 19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18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갤럭시노트7 신제품을 교환해 준다.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들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교환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

환을 19일부터 고객이 개통(구매)한 매장서 지원한다.

KT는 19일 오전10시부터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유플러스 매장 어디서나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한편 갤럭시노트7 예약구입 고객은 기존 개통 고객의 제품 교환이 끝나고 수령할 수 있다. 기어핏2 사은품 등 예약가입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다. 다만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 /뉴시스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